이슈분석

AI 기술의 실현과 정책 피봇의 2026년

▪ 정해창 haechang.chung@daishin.com

[1월: CES 2026] 연간 기술 혁신 트렌드를 확인, AI 발전 방향은?

2026년은 AI가 실질적인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는 전환점이 될 것

- CES 2026은 1월 6-9일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다. 현재 AI가 글로벌 기술 혁명을 주도하는 가운데 행사를 통해 AI의 발전과 상업화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 AI의 상업화 방향은 크게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Agentic AI와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Physical AI로 구조화된다.
  - **Agent AI:** 생성형 AI의 킬러 앱. 각 산업에 특화된 AI 솔루션과 자율 에이전트들이 등장
  - **Physical AI:** 로보틱스, 자율주행차량, 온디바이스 AI 등 물리적 기기와 AI의 결합 사례가 상용화
- 2026년은 각국의 AI 규제 프레임워크 확립과 AI 생태계도 성장으로 AI를 접목한 더 많은 서비스와 제품들이 상용화될 것이다. 어플리케이션의 확장으로 더 높은 성장 잠재력과 시장성이 가시화될 수 있다
- CES를 계기로 소프트웨어, IT하드웨어, 로보틱스, 모빌리티 산업의 AI 모멘텀 확장 가능성을 전망한다. 기존 데이터센터 수혜업종인 반도체, 전력설비 산업의 펀더멘털 또한 견조하다.

Agentic AI vs Physical AI 개요

분류 항목	Agentic AI	Physical AI
작동 형태/구현	- LLM 기반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 API, 브라우저, 클라우드(SAAS) - 엔터프라이즈형 플랫폼 - 실시간 추론 기술 /: LLM (GPT-4, Claude 등 기반)	- 하드웨어: 로봇, 산업용 로봇팔, 자율주행차, 드론 등 - 온디바이스 AI, 내장형 AI 반도체 - 센서(카메라, LiDAR, IMU), 환경 인식 및 자율 동작 - 액추에이터, 실시간 모터 정밀 제어 등
적용 분야/시장	- 소프트웨어 개발 - 엔터프라이즈 자동화 (CRM, 세일즈, CS) - 마케팅/콘텐츠 제작 - 데이터 분석·리서치·사내 지식 관리 - 백오피스(재무·HR·법무) 자동화 등	- 제조업 공장 내 산업용 로봇팔, 협동로봇 등 - 스마트 물류창고, e-커머스 라스트 마일 - 휴머노이드, 의료 로봇, 서비스 로봇 - 농업, 건설, 위험 환경 작업 등
생산성 기여 방식	- 반복적 지식 작업 자동화 (자료 조사, 초안 작성, 코드 리팩토링 등) - 병렬 에이전트 동시 다수 태스크 처리 - 24/7 백그라운드 태스크 수행	- 반복적 물리 작업 자동화 - 24/7 설비 가동률 및 처리량 증가 - 정확도 향상, 불량율 감소 - 인간의 고강도·위험 작업 대체
주요 제품/서비스	- LLM 에이전트 툴 (OpenAI AgentKit, Claude MCP) - 엔터프라이즈용 에이전트 (마이크로소프트 Copilot , 세일즈포스 Agentforce 등) - 자율 코드 생성 (GitHub Copilot Agent , OpenAI CodeEX 등)	- 산업용 로봇 (NVIDIA Isaac, Intuitive da Vinci) - 물류/데이터센터 자동화 로봇 (Amazon Sparrow, NAVER 가로/세로) - 자율주행차 (테슬라 FSD, 구글 Waymo) - 휴머노이드 (테슬라 Optimus, 보스턴다이나믹스 Atlas)

자료 :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1월: CES 2026] AI 이외에 또다른 관전 포인트는?

주목할만한 신기술분야: 디지털 헬스케어, AR/XR

- **디지털 헬스케어:** 헬스케어 산업 또한 AI 도입으로 가장 큰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이다. 팬데믹 이후 건강 원격 모니터링, AI영상 판독이 상용화되었으며 앞으로 AI 의료 소프트웨어와 스마트 바이오센서, 의료용 로봇, AI를 활용한 신약개발 기술 등을 유망 투자 산업으로 전망한다.
- **공간 컴퓨팅:** 초기 메타버스 열풍 당시 XR/AR 형태로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공간 컴퓨팅이라는 개념으로 재정의되고 있다. CES 2026에서는 경량 AR글래스, 산업용 XR 솔루션 등 메타버스의 현실화를 보여주는 제품들이 선보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 이외에도 핀테크, 푸드테크, IoT(사물인터넷), 우주기술, 친환경기술 등이 CES2026에서 주목할 만한 키워드로 소개된다.
- CES 이후로도 각 JPM 헬스케어 컨퍼런스, MWC 등 산업/테마별 주요 박람회, 학회, 산업 행사를 통해 소개되는 신기술은 새로운 주도주와 투자포인트를 발굴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할 것이다.

2026년 주요 산업 이벤트 일정

산업	컨퍼런스	설명 및 분야	개최 시기
글로벌 리더십	다보스 포럼	세계 경제, 정치, 사회, 기술 리더들이 모이는 연례 포럼.	1월
IT / 소비자 기술	CES 2026	소비자 전자제품 및 IT 기술 전시회.	1월 6일 – 9일
	MWC	모바일 통신, 연결성 기술 생태계 전반을 다루는 박람회.	3월 2일 – 5일
	IFA Berlin	유럽 소비자 가전 및 홈 어플라이언스 전시회.	9월
인공지능 (AI)	NeurIPS	AI/머신러닝 학술 대회.	12월
	NVIDIA GTC	엔비디아 주최, AI, 딥러닝, GPU 기술 개발자 컨퍼런스	3월
	World Summit AI	AI 기술의 상업적 응용 및 비즈니스 전략 글로벌 비즈니스 서밋	10월
소프트웨어	GDC	개발자 중심의 게임 컨퍼런스	3월 9일 – 13일
	Gamescom	세계 최대의 컴퓨터 및 비디오 게임 이벤트	8월 26일 – 30일
	AWS re:Invent	Amazon Web Services 주최,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컨퍼런스	12월 초
	Dreamforce	Salesforce 주최,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CRM 및 AI 컨퍼런스	9월
산업 / 제조 / 모빌리티	하노버 메세	세계 최대의 산업 기술, 자동화, 디지털 제조 박람회.	4월 20일 – 24일
	IAA Mobility	자동차 산업의 미래, 전기차, 자율주행 등 모빌리티 기술 박람회.	9월
생명과학 / 의료 학회	J.P. Morgan 헬스케어 컨퍼런스	헬스케어 및 바이오테크 분야 투자 컨퍼런스.	1월 12일 – 15일
	ASCO 연례 회의	임상 종양학 분야 학술 대회.	5월 29일 – 6월 2일
	ESMO 유럽종양학회	유럽 종양학 전문 학술 대회.	10월 23일 – 2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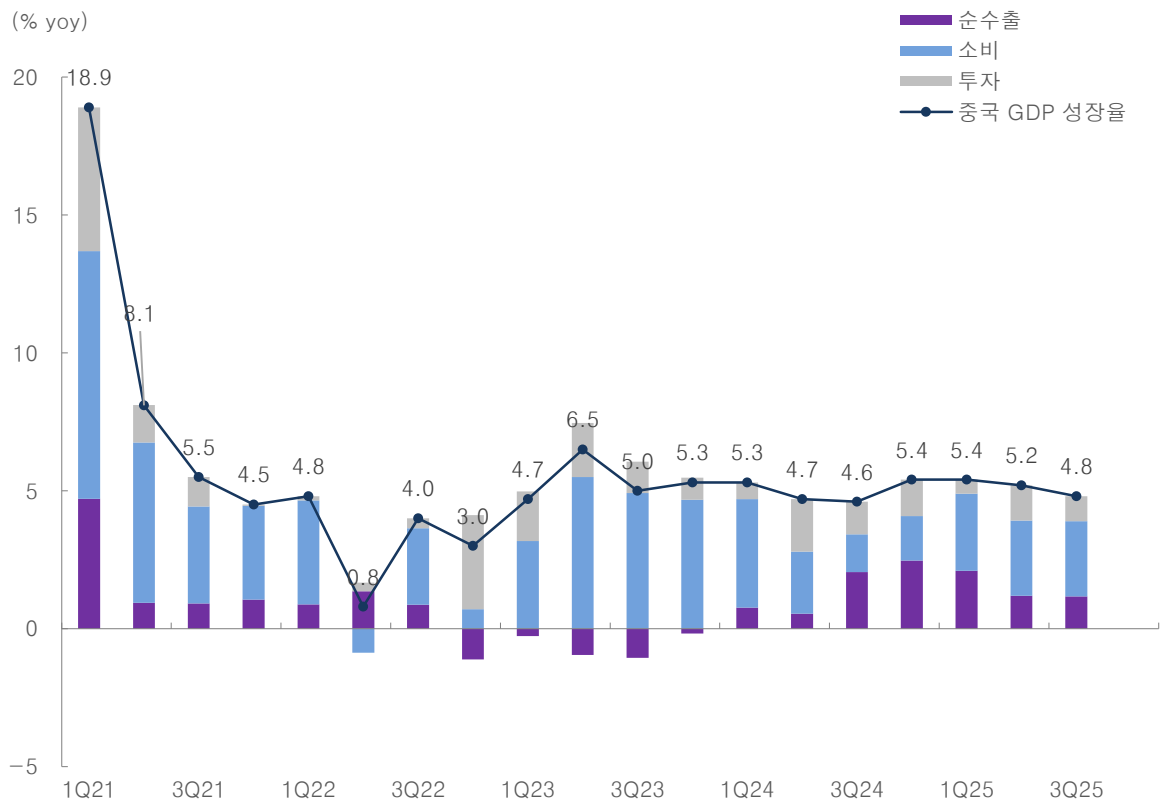
자료 :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3월: 중국 양회] 2026년은 공산당 15차 5개년의 첫 단추

15차 5개년 계획(2026-2030)의 구체화, 성장 목표에 주목

- 2026년 양회의 가장 핵심적인 의제는 15차 5개년 계획의 세부 목표 확정이다. 25년 10월 제20기 4중 전회에서 소비주도 성장모델과 기술자립(반도체, AI, 양자컴퓨팅 등 핵심기술), 실질 생산력 확대와, 대외개방 확대를 포함한 권고안이 채택되었으며 3월 전인대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 GDP 성장률 목표 또한 주목할 지표이다. 기존의 5% 성장목표에서 인구 감소와 부동산 부진 등 현실적 제약을 감안한다면 4.5~5% 사이의 성장목표가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IMF 등 주요 기관은 중국의 실질 성장률을 4.2~4.5% 수준으로 예측하고 있다.
- 성장 목표와 실질 성장과의 괴리가 핵심이다. 중국 정부는 이 차이를 메우기 위해 재정 정책과 부양책을 집행하며 부양책의 강도와 방향성에서 투자 기회가 발견할 수 있다.

제 14차 5개년(2021~2025) 중국 GDP 성장률 구성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CE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3월: 중국 양회] 소비주도 성장모델로의 전환

과잉공급과 수출 증대 정책의 성장 한계 봉착, 소비 촉진 정책과 산업 변화에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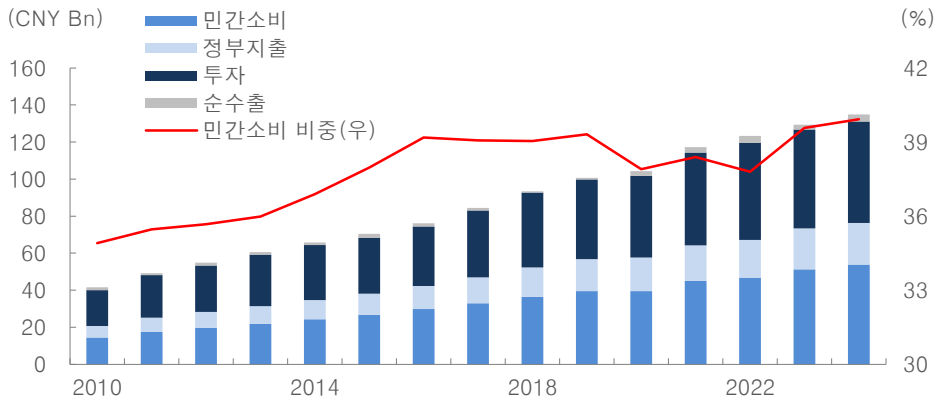
- 중국 정부는 15차 5개년('26-'30) 기간 동안 소비 주도 성장모델로의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기존 이구환신 보조금과 같은 소비지원 프로그램의 확대와 함께 부의 효과를 유도하기 위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증시부양 정책 등이 더욱 강해질 수 있다.
- 지속가능한 소비 성장을 위해서는 자산의 부의효과보다 소득 주도의 소비력 확대가 필수적이다. 저임금 노동과 산업 보조금 정책으로 국내 제조업을 위협하던 중국의 압박 강도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한다.
- 중국의 서비스 산업은 제조업 대비 성장 여력이 크다. 이는 여행, 엔터, 의료와 같은 선진국형 소비패턴으로의 이동을 시사한다. 중국 소비주와 관광(호텔/카지노), 컨텐츠 산업에서 정책적 수혜를 기대한다.

2025년 15차 5개년계획 vs 2020년 14차 5개년 계획 비교

구분	2020년(14차 5개년)	2025년(15차 5개년)	변화 해석
기조	고품질 발전 언급 시작	**고품질 발전** 최상위 기조로 설정	**질적 성장** 전면화
기술	혁신주도 발전	고수준 기술 자립자강	기술 주권 확보 강조
내수	쌍순환 언급	**민생→소비 촉진** →투자 유인	**소비 강조**
개방	자유무역 확대 / 편리화	**제도형 개방 / 자주 개방**	**글로벌 규칙 수용** 자국 규범 중심의 질적 개방
민생	공동번영·소득제고	노인, 아이, 가족 **삶의 질 개선**	저출산·고령화 대응
녹색	녹색발전 추진	탄소피크·탄소중립 달성	의제 이행 의지 강조
안보	통합적 발전·안전	국가안보 체계 현대화	안보 범위 확대
국방	국방력 강화 목표	지능화, 통합 전력 체계	첨단 전력구조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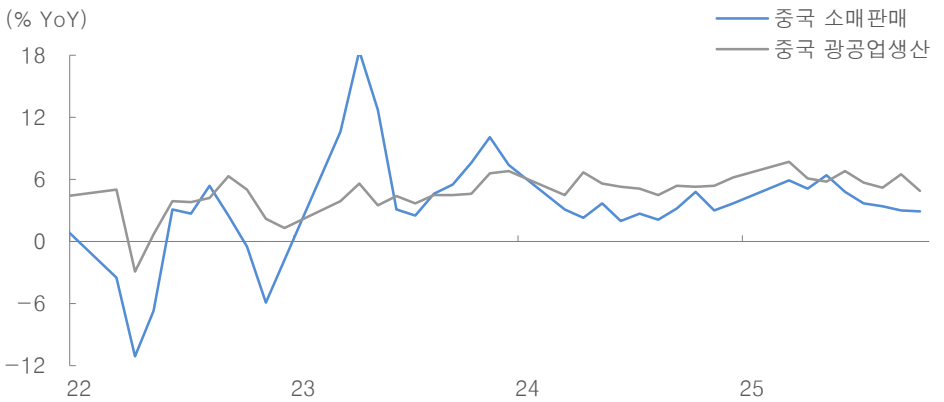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재인용,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중국 GDP 구성, 민간소비 비율은 40%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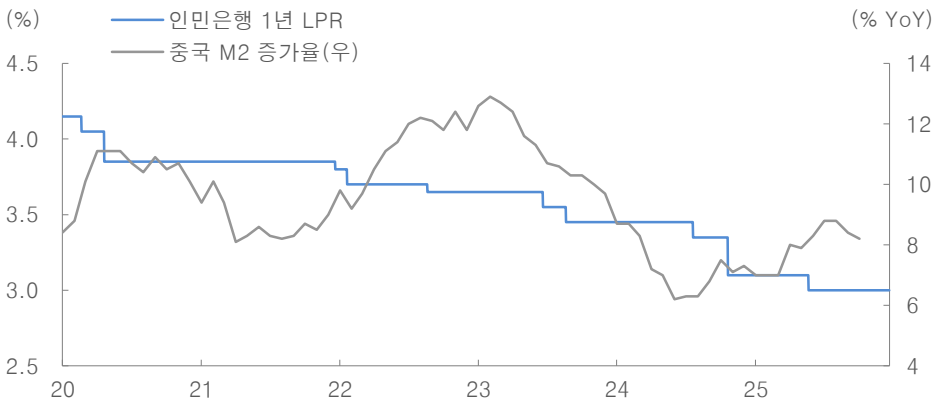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CE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생산 대비 저조한 소비 성장의 누적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CE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펜데믹 이후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해온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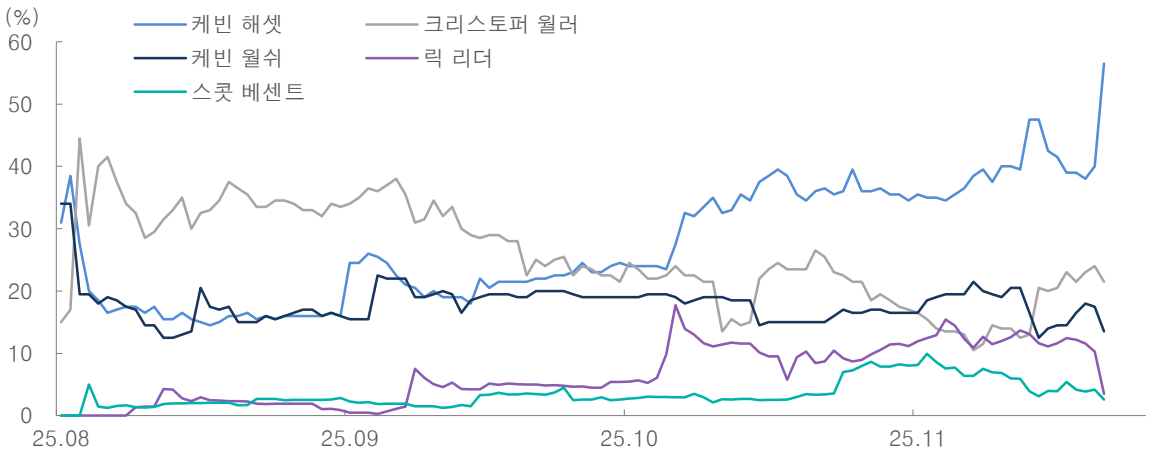
자료: 중국 인민은행, CE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월: 연준의장 교체] 더 강한 통화정책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을까?

5월 15일 연준 의장 교체 예정, 트럼프는 정책에 공조할 수 있는 후임을 고심 중

-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재임 시기에 제롬 파월을 연준 의장으로 직접 지명했다. 그러나 2018년에 이어 2기 행정부가 시작된 2025년까지도 트럼프와 파월의 충돌은 지속되고 있다.
- 트럼프 행정부는 감세와 규제완화, 관세부과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러한 정책이 불러올 수 있는 성장둔화나 미국 장기국채 금리의 상승, 달러 강세 압력을 Fed의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상쇄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 그러나 파월 의장과 연준은 관세로 인한 물가상승 가능성을 경고하며 섣부른 금리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 트럼프의 정치적 압력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파월 연준의장의 임기는 2026년 5월 15일로 종료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차기 연준의장으로 행정부 정책에 공조하는 완화적 통화 정책을 선호하면서도 금융시장의 신뢰를 깨지 않을 수 있는 인물을 선임하기 위해 신중한 인선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보인다.
- 어떠한 인사가 선임되더라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파월의장 대비 완화적인 통화정책 성향을 가진 의장이 발탁될 것으로 전망된다.

Polymarket, 베팅시장에 반영된 연준의장 선임 전망



자료: Polymarke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월: 연준의장 교체] 파월보다 완화적인 차기 의장 선임 예정

트럼프 입맛에 맞는 완화적 통화정책 성향과 충성도가 선임을 좌우하는 요소

- 26년 5월 15일 파월의 임기 만료 이후 후임으로 선임되는 신임 의장의 통화정책 기조에 따라 향후 글로벌 증시의 금융환경이 변화할 수 있다. 트럼프는 파월 임기종료 이후 보다 완화적 통화정책 성향을 가진 연준 의장을 선임하여 행정부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자 할 것이다.
- 크리스토퍼 월러와 케빈 워쉬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 접점을 넓히면서 연준의장 후보로 부상했다. 연준이사 출신으로 금융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안정적 선택지이다. 트럼프 입장에서 정치적 충성도와 정책 공조 신임도가 선임을 좌우하는 요인일 것으로 판단된다.
- 캐빈 해싯은 행정부 노선에 충실한 완화적 정책을 펼 수 있는 후보이다. 특히 트럼프 1기부터 대통령의 경제 참모로써 법인세 인하와 감세, 관세 등 행정부의 시장 친화적 정책 기조를 따를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연준의 독립성과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의구심은 연준의 시장 지배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주요 연준 의장 유력 후보군 비교

후보	주요이력
크리스토퍼 월러	**이력:** 현직 연준 이사회 위원 **성향:** 완화적(dove) 성향으로 평가되나, 고인플레이션 기간에 금리인상에 찬성으로 선회한 실용주의 성향, 제인트루이스 연은에서 FRED 데이터베이스를 발전시킨 인물로 파월 대비 데이터 의존적 성향 **평가:** 연준 내부 경험이 있어 정책 연속성·시장 신뢰성 측면에서 강점. 트럼프가 원하는 금리 인하 쪽에 최근 스탠스를 맞추면서도, 연준 독립성·전문성 이미지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타협안
케빈 해싯	**이력:** 현직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성향:** 트럼프 행정부 경제 참모로 완화적 통화정책 지향. 트럼프 1기 법인세 인하 등 친 시장적 성향 **평가:** 트럼프와 정책적 공조 가능성 높으며 완화적 정책 기대, 상원 인준 시 "연준 독립성" 논란이 커질 수 있음 시장이 정책 실행속도와 내용에 의문을 가질 인플레 기대·달러 신뢰·채권시장 리스크 프리미엄 증가 등 신뢰도 리스크 발생가능
케빈 워쉬	**이력:** 전 연준 이사(2006-2011), 현재 스탠포드 후버연구소 선임연구원 **성향:** 전통적 매파(hawk) 이미지, 최근에는 연준의 역할 축소 및 통화정책 체계 개편을 주장 **평가:** 시장에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선택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벤 버냉키의 파트너로 위기관리 경험이 강점 트럼프 1기 당시 파월과 함께 연준의장 후보로 평가. 임명 이후 통화정책 원칙 고수한다면 파월과 같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갈등 가능성.
릭 리더	**현직:** 블랙록(BlackRock) 글로벌채권 최고투자책임자(CIO) **성향:** 비둘기파, 시장에 "완화 기대를 반영하는 인물"로 평가 **평가:** 민간부문 출신으로 시장 커뮤니케이션 능력·자산운용 경험이 풍부. 다만 중앙은행 내부 경험이 적다는 점에서 의장으로서의 리더십과 정책결정 메커니즘에 대한 경험 부족, 인준 리스크가 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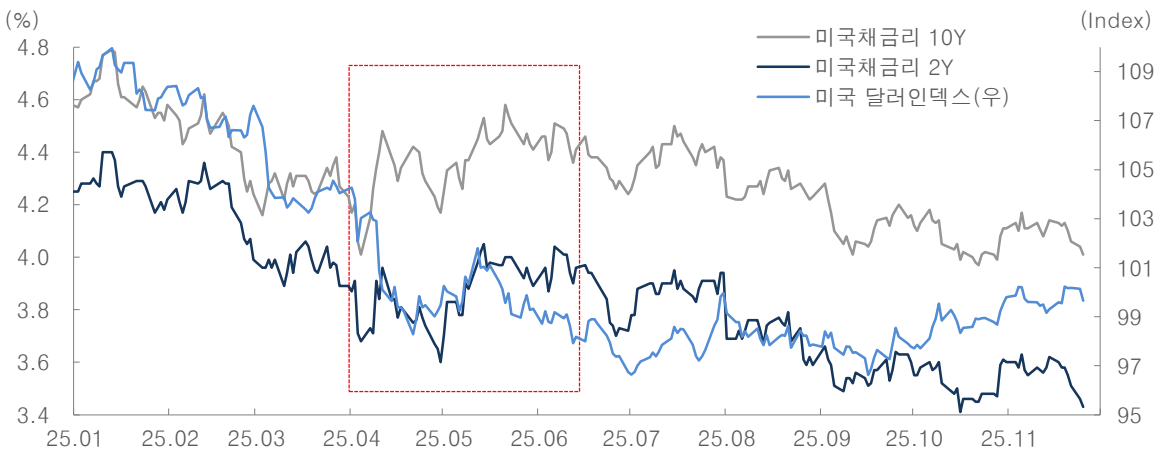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6월: FOMC & 8월: 잭슨홀 미팅] 연준의 독립성과 차기 의장의 딜레마

여측이심(如厠二心),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은 다르다

- 연준 의장 교체 과정에서 가장 큰 우려는 중앙은행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 리스크이다.
- 특히 미국의 경우 중앙은행의 정치적 독립에 대한 믿음이 깨질 경우 기축통화 지위의 훼손, 금융자산의 리스크 프리미엄 상승이 시장 충격으로 확산될 수 있다. 특히 정치에 맞춘 통화정책의 경기부양은 장기적으로 물가상승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 차기 의장 또한 이를 잘 알고 있기에 실제로 실행하는 정책은 트럼프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선입 과정에서의 의회의 견제와 연준 내부 의사결정의 자정능력도 이에 영향을 미친다.
- 즉, 차기 의장의 성향과 별개로 연준의장 선임 이후 시장의 Re-Pricing과 함께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연준의 정치화 우려 또한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나타날 수 있다.
- 연준 의장 교체 관련 중요 이벤트 일정:
  - **상반기 차기 의장 지명 및 상원 인준/청문회:** 후보자의 정치 성향 논쟁, 정치적 독립성 논쟁에 따른 통화정책 기대감 변화 가능
  - **6월 17일 FOMC:** 신임 의장이 처음으로 주재하는 회의, 기자회견에서 통화정책 기조 확인
  - **8월 잭슨홀 컨퍼런스:** 신임 의장의 연설에서 변화되는 통화정책 프레임(인플레이션 타겟팅, 금융안정 철학, 정부 재정 관련 견해 등)확인

트럼프의 파월 해임 위협 시기, 연준 독립성 리스크는 달러화 자산 이탈을 초래



자료: CE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6월: 한국 지방선거] 시험대에 오르는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

기초단체장 선거 결과에 따라 정책 동력 영향 불가피

- 6월 3일 실시되는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중간 평가 이벤트로, 선거 결과는 국정 동력과 경제·금융 개혁 속도를 규정하는 핵심 변수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 에너지 고속도로, 지역 기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등 프로젝트는 선거 결과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지방정부는 인허가, 입지, 보조금의 집행력을 갖고 있으며, 사업 또한 지역 주민 수용성에 좌우되기 때문에 기초단체장 선거 결과는 정책의 진행 속도와 강도에 영향을 미친다.
-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 정책의 추진력 또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부동산 정책은 수도권과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며 수도권 재건축 등 정책 방향성에 따라 '머니무브' 정책이 함께 좌우될 수 있다.

이재명 정부 주요 정책과 선거 파급효과 예상

주요 정책	선거 & 정책 지지도에 따른 추진력 변화
에너지 고속도로	• 재생에너지 발전소 입지 허가, 송전망 구축 인허가, 보조금 집행은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 • 수도권 송전선로 경유지인 하남, 광주, 용인 지역의 기초단체장 선거는 전력망 확충의 변수 • 호남권 '솔라시도' 기업도시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 및 협조 필요 • 지자체 협조 부재할 경우 행정 소송과 공사 중지 명령 등 정책 차질 가능 • 주민 수용도에 따라 주민 반발에 따른 정책 지연과 보상 비용 소요
AI 대전환(AX)	• 주민들의 정책 수용도에 따라 데이터전자파와 지가 하락 우려 등 부정적 이미지 확대 가능 • 지자체 협조 부재 시 행정 절차 지연, '데이터센터 반대' 공약 단체장 당선 시 정책지연 및 행정절차 마비 우려 • AI 데이터센터 구축 시 전력 공급 포화 가능, 전력망과 연계된 분산 정책과 정책 공조 필요 • 강원도(춘천, 원주), 부산(에코델타시티), 울산(AWS-SK AI존) 등은 데이터센터 유치에 적극적인 지자체
생산적 머니무브	• 생산적 금융전환 정책의 성공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전제 •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은 서울시장 및 수도권 기초단체장 선거 최대 변수가 될 전망 • 기초단체장 선거 결과에 따라 수도권 3중규제(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부동산 규제의 지속성 및 일관성 변화
코스피 5,000	• 여당의 우세는 코스피 5,000정책과 상법 개정(이사 충실 의무 대상 주주로 확대)의 강력한 추진 동력 •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부자 감세'라는 여당내 비판을 감수하고 추진하는 실용주의 정책 추진력에 변화 • 야당이 약진할 경우, 정부의 상법 개정 시도는 "기업 경영권 침해"라는 논리에 부딪힐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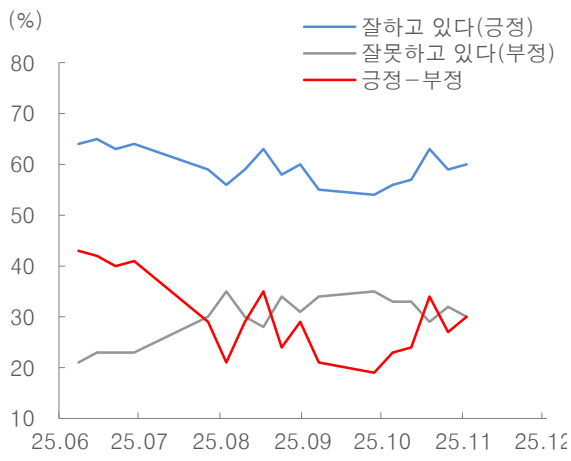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6월: 한국 지방선거] 선거의 방향을 좌우할 경제정책

최대 격전지가 될 수도권, 키워드는 부동산 안정화와 생산적 머니무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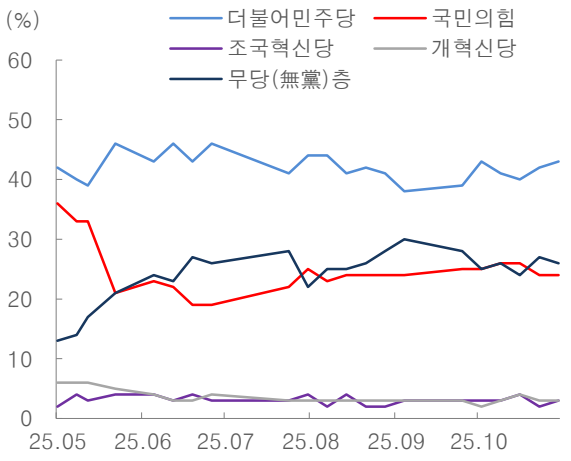
- 2026년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격전지는 서울시장이다.
- 지난 21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47.1%의 득표율로 승리했으나, 과반을 득표한 경기/인천과 비교하면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 일각에서는 이를 과거 정부에서 폭등한 부동산을 주 원인으로 추정한다. 서울시장 표심을 가르는 가장 큰 변수가 부동산임은 자명하다.
- 최근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여론조사 평가에서 외교(34%)에 이어 경제/민생(14%)이 긍정 평가의 최상위권에 위치했으며, 부정 평가에서는 사법리스크에 이어 경제/민생(9%)과 부동산정책/대출규제(7%)가 상위권에 위치했다.
- 즉, 민생과 경제가 현재 정치적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선거와 공약이 제시되는 과정에서 현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중인 생산적 금융 전환 정책의 방향성과 추진력의 변화에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자료: 한국갤럽,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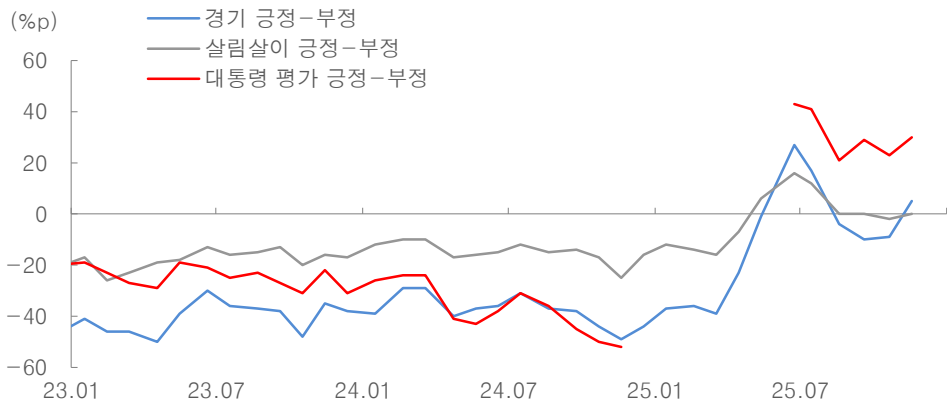
주: 무당(無黨)층='현재 지지하는 정당 없음/모름/응답거절'
자료: 한국갤럽,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부정 평가 이유

순위	대통령 긍정 평가 이유	비율(%)	대통령 부정 평가 이유	비율(%)
1	외교	34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	12
2	경제/민생	14	대장동 사건/검찰 항소 포기 압박	11
3	전반적으로 잘한다	8	경제/민생	9
4	직무 능력/유능함	4	부동산 정책/대출 규제	7
5	APEC 성과	4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6
6	추진력/실행력/속도감	4	독재/독단	6
7	소통	3	친중 정책/중국인 무비자 입국	6
8	서민 정책/복지	2	외교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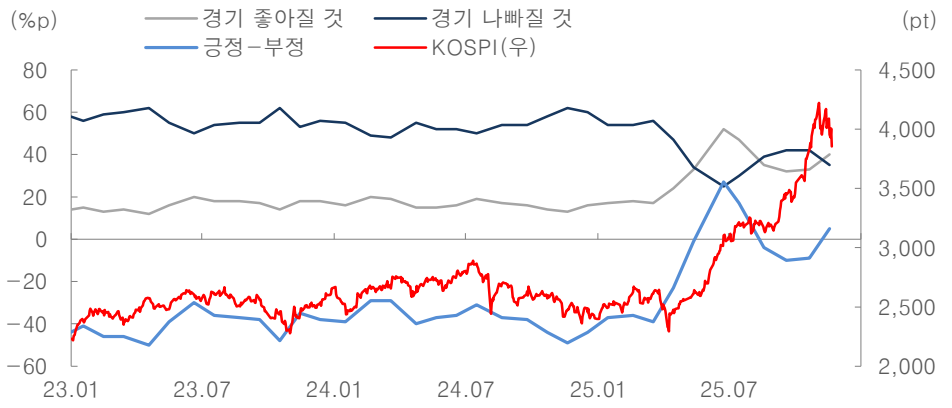
주: 2026년 11월 18~20일 기준, 긍정 평가자 600명, 부정 평가자 305명
자료: 한국갤럽,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대통령/여당 지지율, 경기와 살림살이 평가 영향이 높아



자료: 한국갤럽,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경기(국가경제) 전망 vs KOSPI 주가지수



자료: 한국갤럽,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11월 미국 중간선거] 트럼프 2기의 중간평가와 정권 심판의 성격

트럼프는 2018년 중간선거의 트라우마를 떨쳐낼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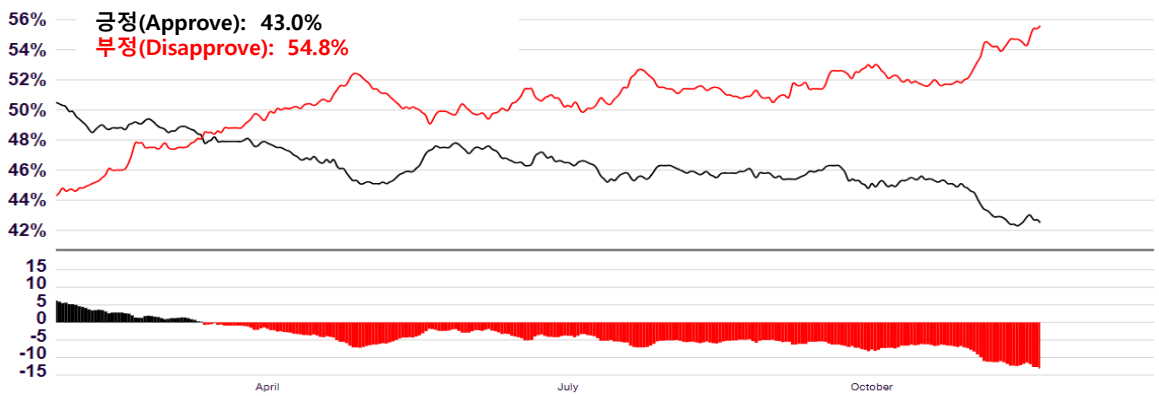
-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2막을 결정짓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 중간선거를 통해 하원 전체인 435석과 상원의 1/3에 해당하는 33석(Class II)이 교체될 예정이다.
- 미국 대통령의 첫 중간선거는 오바마(2010 대패), 트럼프(2018 하원 상실), 바이든(2022 하원 다수당 상실) 등 여당의 패배 패턴이 반복되어 왔다. 특히 하원은 구조적으로 "정권심판"의 성격이 강하다.
-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지지율은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 이미 11월 초 뉴욕시장과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에 패배한 있다. 임기 초 강도높은 이민/관세 정책의 반향과 앱스타인 사태 등 정치적 스캔들이 지속면서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2025년 미국 상하원 구조와 중간선거 대상

의원	클래스	선거 연도	총 의석	공화당	민주당	무소속/공석
상원	Class I	2030년	33	11	20	2
	Class II	2026년	33	20	13	0
	Class III	2028년	34	22	12	0
	상원 계	-	100	53	45	2
하원		2026년	435	220	213	2 (공석)

자료: 국내외 주요언론,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추이



자료: RealClearPolitics 직접인용,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11월 미국 중간선거] 트럼프 2기 후반부의 정책 동력을 좌우

중간선거 향방에 따라 남은 임기 정책 동력 변화 불가피

- 트럼프는 2018년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잃으며 이민개혁, 인프라 법안, 오바마케어 대체, 감세 영구화 등 추진하던 주요 정책들이 좌초된 바 있다. 2026년 트럼프는 이전 임기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중간선거 승리에 정책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상하원 모두 공화당의 다수당 확보, 보수적 성향의 연방대법원이 유지되는 강력한 정책 집행력을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감세 패키지(OBBBA), 광범위한 관세 정책, 에너지/환경 규제 완화, 이민 집행 강화, 민주당 정책의 롤백 과 같은 강도높은 정책 추진이 가능했다.
- 트럼프 2기의 주요 정책들은 향후 예산 승인과 입법 보완 과정에서 의회 승인이 불가피하다. 향후 트럼프의 정책 동력은 2026년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주요 정책 아젠다

분야/슬로건	주요 정책·수단(예시)
치안·이민	•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재개 및 확대, 불법 국경 망명 제한 • 대규모 불법체류자 추방 작전·이민 단속 강화, 이민 비자 수수료 인상
물가·에너지	• 가스·석유·석탄·셰일 등 화석연료 채굴·파이프라인 인허가 대폭 완화 • 친환경·탄소규제 전면 재검토 및 완화, 재생에너지 보조금·투자 축소 •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 인프라 건설 신속 절차 도입
통상·관세·산업정책	• IEEPA(국제비상경제권법) 활용,전 세계에 일괄 관세 부과 • 최혜국대우 원칙에 비판적 입장, 양자·소수국가 중심 재협상 지향 • 관세 인상과 병행해 "미국 내 생산" 조건으로 보조금·세제 인센티브 확대
성장·투자·노동시장	• 2017년 감세법(TCJA) 혜택 연장 및 추가 법인세·소득세 감세 • 신규 규제를 최소화하고 기존 규제 일괄 재검토 • 주요 산업(에너지·광물·국방·AI 등)에서 국가 주도형 산업정책 강화
행정 축소·관료 개편	• 연방 공무원 조직 구조조정 • DEI(다양성·형평성·포용) 프로그램 및 관련 직위·예산 대폭 축소·폐지
외교·안보·동맹 재편	• 동맹국 방위비·안보 비용 추가 부담 요구, 미군 주둔 비용 협상 재검토 • 대중국 견제: 첨단기술 수출통제·투자제한·관세 인상 등 유지·강화 • UN·WTO 등 다자기구에 대한 불신, 필요시 탈퇴·기여 축소 카드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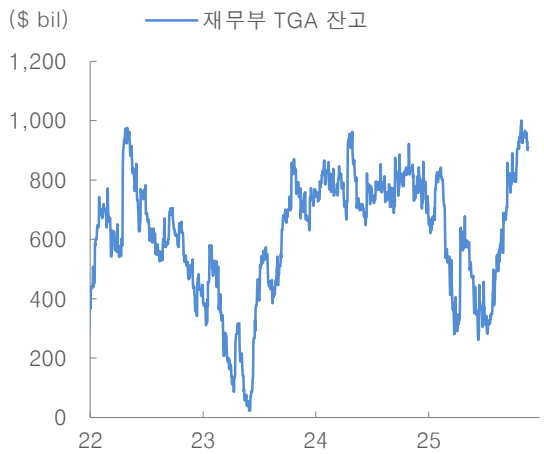
자료: 백악관, 국내외 주요언론,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11월 미국 중간선거] 총알 장전 완료, 중요한건 경제야

트럼프가 깔아둔 정책 시나리오, 2025년 충격요법 이후 2026년은 '피봇'의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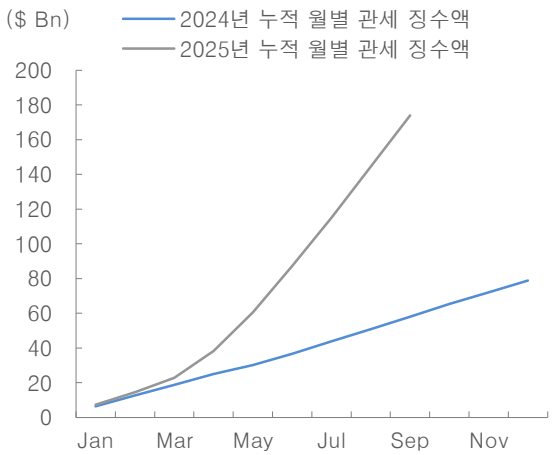
-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이미 큰 축을 형성했다. 관세 측면에서는 4월 "자유의 날" 이후 국가별 관세 를 부과하면서 물가와 성장 부담이 가중되었으나, 전략물자의 미국내 생산, 농산물과 항공기 수출 증대, 해외 자본의 투자유치를 미래의 경제성장 동력으로 이연시켰다.
- 재정과 조세 측면에서는 OBBBA 통과로 소득세 감면, 대출이자 공제 등을 정치적 슬로건으로 확보했다. 재무부는 9천억달러 이상의 TGA 현금잔고를 충당하여 재정을 집행할 준비를 마쳤다.
- 경제적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주가지수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 방향성이 예상된다. 중간선거에 맞춰 2,000달러 규모의 관세 배당금을 지급하는 현금성 정책 카드가 검토되고 있다.
-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던 대형 관세나 규제는 자제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이미 서민 물가에 영향을 주는 커피, 코코넛, 소고기 등 주요 농산품의 고율관세를 면제하면서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 즉, 2025년에 트럼프가 '충격요법' 적 정책에 집중했다면 2026년에는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시장 친화적인 정책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한다.

재무부 현금 9천억 달러 충전, 집행 개시 예정



자료: US 재무부, CE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2025년 관세 수입 배당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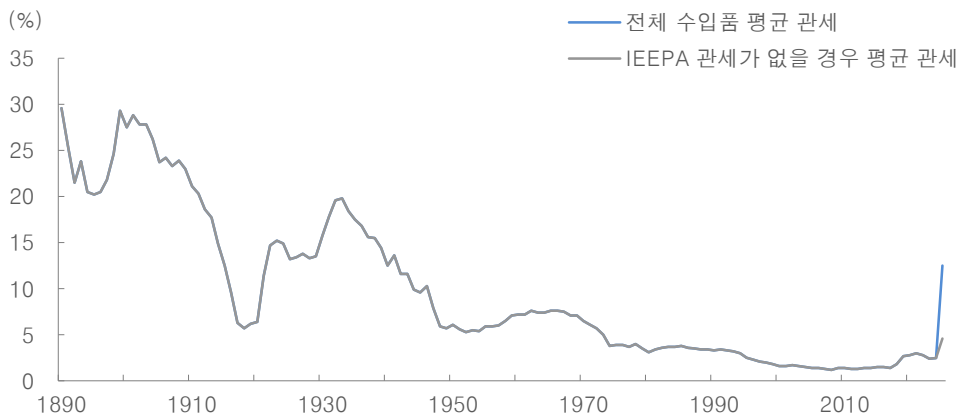
자료: US 재무부, Tax Foundation,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주가지수와 선거와의 상관관계

중간선거 연도	대통령	정당	하원 의석 변화	상원 의석 변화	선거전 수익률 (12개월)	선거후 수익률 (3개월)	선거후 수익률 (12개월)
1962	John F. Kennedy	D	-4	+3	-17.6	17.1	30.9
1966	Lyndon Johnson	D	-47	-4	-13.2	8	17.1
1970	Richard Nixon	R	-12	+2	-14.4	15.1	13
1974	Gerald Ford (Nixon)	R	-48	-5	-31.8	4.2	20.5
1978	Jimmy Carter	D	-15	-3	0.9	7.3	9.3
1982	Ronald Reagan	R	-26	+1	9.7	8.7	22.3
1986	Ronald Reagan	R	-5	-8	28.5	12.3	3.2
1990	George Bush	R	-8	-1	-10.7	13.1	29.1
1994	Bill Clinton	D	-52	-8	1	-0.4	23.1
1998	Bill Clinton	D	+5	0	20.1	16.5	24.1
2002	George W. Bush	R	+8	+2	-16.4	-3.4	18.6
2006	George W. Bush	R	-30	-6	14.2	4.4	12.4
2010	Barack Obama	D	-63	-6	14.2	8.7	5.9
2014	Barack Obama	D	-13	-9	14.9	-1.1	3
2018	Donald Trump	R	-40	+2	5.3	-0.3	12
2022	Joe Biden	D	-9	+1	-22.1	5.72	8.76
평균 의석 변화			**-22**	**-2**			
중간선거 연도 평균					**-1.1**	**7.3**	**16.3**
비중간선거 연도 평균					11.2	2.9	6.4

주석: 데이터 기간 1961~2022년
자료: US Bank 재인용,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미국 역사적 관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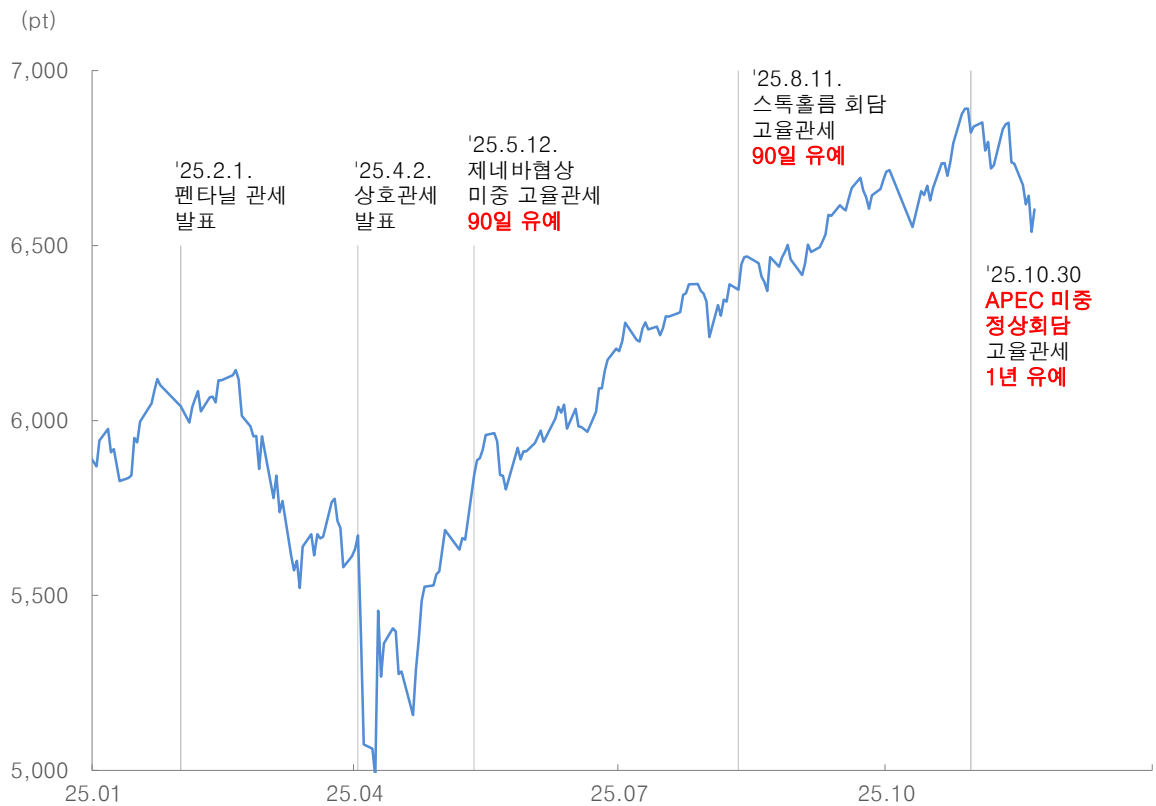
자료: US US BLS, Tax Foundation,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11월 미중 협상] 1년 뒤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하는 미 vs 중

11월 10일 관세 휴전 종료와 맞물려 APEC, G20 등 국제 회의 예정

- 특히 연이어 개최되는 APEC(11월 중)과 G20(12월 14~15) 정상회의는 미중 관세전쟁의 휴전 종료(11월 10일) 일정과 맞물린다. 특히 APEC은 중국 심천, G20 정상회의는 미국 마이애미에서 개최되는 만큼 상대국 정상 참여 시 정상간 만남이 성사될 예정이다.
- 앞서 언급한 중간선거 일정이 관세 휴전 시기와 맞물린 것 또한 변수이다. 트럼프 행정부에게 반중국 정책은 주요 정책 중 유권자 지지율이 높아지는 정책이다.
- 11월이 다가올 수록 미중간 갈등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양국의 평화 혹은 갈등 구도와 상관없이 11~12월이 미중 관계의 변곡점이 될 것이다.
- 또한 글로벌 지정학적 구도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양분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각 회의 주최국인 미국과 중국의 메시지 확대, 국제질서 재편 시도가 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 미중관계 이외에도 러-우/중동/양안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등 지정학적 이슈의 금융시장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연말 이벤트를 전후하여 변동성에 유의해야 한다.

미중 교역갈등과 S&P500 주가지수



자료: Refinitiv,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미중 갈등] 전략자원의 교환과 교역 불균형의 해소 여부에 주목

중국의 패는 희토류와 농산물 수입, 미국의 패는 AI반도체와 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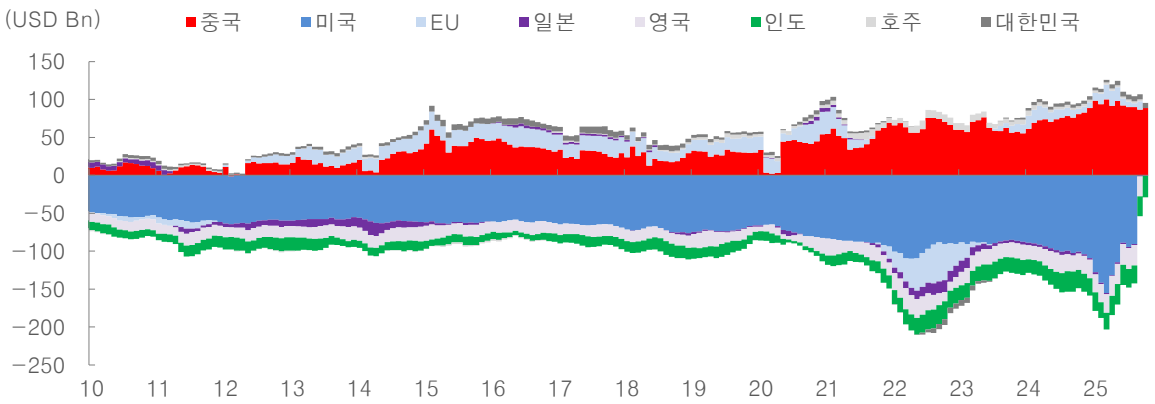
- 미중 갈등의 구조적 원인은 누적된 교역 불균형으로 미국의 경쟁력이 약화되었다는 것이다.
- 미국은 교역 적자를 메우는 방법으로 관세를 통한 수입 통제와 동시에 농산물, 에너지 수출을 확대하는 중이다. 중국 또한 급격한 발전의 불균형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내수 확대라는 성장 방향을 수용했다.
- 그 과정에서 미국은 관세라는 압박카드로 중국의 농산물/에너지 수입 증가를 요구하고 있다.
- 전략자원인 희토류, 반도체는 교역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조커이며, 해당 전략자원의 공급망 대체 또는 적절한 수출 허용 신호가 양국의 긴장관계와 협상양상을 판단할 수 있는 시그널이다.

미중 교역의 주요 갈등의제

이슈	미국	중국
전략자원	**AI반도체** • 수출 시 중국의 AI기술 발전이 미국의 기술 패권과 안보를 위협할 우려 • 수출 금지 시 화웨이, SMIC 등 중국 기업의 기술발전 우려 • 중국이 최신 기술이 아닌 하향된 미국의 반도체에 의존하도록 하여 기술발전을 지연	**희토류** • 첨단/정밀 산업 제조에 필수적인 원료 • 중국의 희토류가 미국의 최첨단 방위산업 및 무기생산에 활용될 우려 • 수출 금지 시 알레스카,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미국이 대체 공급망을 구축할 가능성
불공정 교역	• 중국정부의 산업 보조금과 과잉생산 정책이 미국과 글로벌 제조업 경쟁력을 위협 • 누적되는 교역적자는 미국의 재정건전성을 위협, 중국이 농산물, 에너지를 더 구매해야	• 중국의 교역 흑자는 가격 경쟁력의 산물 • 중국은 미국의 관세정책이 교역 질서를 파괴한다고 주장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누적된 교역 불균형을 되돌리고자 하는 미국



자료: CE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2026년 주요일정

연간 금융시장 주요 이슈/이벤트

1Q

주요일정

- 1/1 EU 탄소국경제도 시행
- 1/6~9 CES 2026
- 1/19~23 다보스 포럼
- 2/6~22 이탈리아 동계올림픽
- 3/2~5 MWC 2026
- 3월 중국 공산당 양회
- 3월 엔비디아 GTC

통화정책

- 1/15 한국은행 금통위
- 1/28 연준 FOMC
- 2/26 한국은행 금통위
- 3/18 연준 FOMC (경제전망)

2Q

주요일정

- 5/29~6/2 미국 임상종양학회(ASCO)
- 6/3 한국 지방선거
- 6/11~7/19 북중미 FIFA 월드컵
- 6/14~16 프랑스 G7 정상회의

통화정책

- 4/13~18 IMF/세계은행 춘계회의
- 4/10 한국은행 금통위
- 4/29 연준 FOMC
- 5/28 한국은행 금통위
- 6/17 연준 FOMC (경제전망)

3Q

주요일정

- 7/6~12 국제 머신러닝 학회
- 7/7 NATO 정상회의

통화정책

- 7/16 한국은행 금통위
- 7/29 연준 FOMC
- 8월 잭슨홀 컨퍼런스
- 8/27 한국은행 금통위
- 9/16 연준 FOMC (경제전망)

4Q

주요일정

- 10/12~18 IMF/세계은행 연례회의
- 10/23~27 유럽종양학회(ESMO)
- 11/3 미국 중간선거
- 11월 중국 APEC 정상회의
- 12월 14~15 미국 G20 정상회의

통화정책

- 10/22 한국은행 금통위
- 10/28 연준 FOMC
- 11/26 한국은행 금통위
- 12/9 연준 FOMC (경제전망)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위 언급된 종목을 제외한 동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작성자: 정해창)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